6번 · 2루수 김하성, 7번 · 1루수 최지만

메이저리그 개막전 선발 명단에

김하성, 샌디에이고 · 최지만, 피츠버그 첫 시즌 출전 예상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메이저리그(MLB) 27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이 선정한 개막전 선발 명단에 한국인 메이저리거 김하성(28 ·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최지만(32 · 피츠버그 파이리츠)이 이름을 올렸다.

김하성은 6번 타자 겸 2루수다.

샌디에이고의 개막전 선발은 잰더 보가츠(유격수)-후안 소토(좌익수)-매니 마차도(3루수)-제이크 크로넨워스(1루수)-맷 카펜터(지명타자)-김하성(2루수)-트렌트 그리샴(중견수)-오스틴 놀라(포수)-데이비드 달(우익수)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하성은 지난해 팀의 주전 유격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이탈 속에 유격수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2022시즌을 마친 뒤 팀이 대형 유격수 보가츠를 영입하면서 빅리그 3년 차를 맞는 김하성의 포지션은 2루로 바뀌었다.

선발투수는 블레이크 스넬이, 마무리투수는 조시 헤이더가 맡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과 지난해 개막전 선발투수를 맡았던 다르빗슈 유(37)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참가 여파로 올 시즌 개막전 선발 출전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MLB닷컴은 "샌디에이고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 기간 샌디에이고는 지명타자와 우익수를 플래툰 시스템(상대 선발 투수 유형에 따라 타자의 출전 여부를 결정)으로 기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막전 상대 콜로라도 로키스 선발을 우완 게르만 마르케즈로 내다보면서 이에 맞춰 좌타자 카펜터가 나설 것으로 설명했다.

샌디에이고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콜로라도와 개막전을 치른다.

지난해 11월 트레이드로 피츠버그로 합류한 뒤 첫 시즌을 맞는 최지만은 7번 타자 겸 1루수다.

피츠버그는 오닐 크루즈(유격수)-브라이언 레이놀즈(중견수)-카를로스 산타나(지명타자)-앤드류 맥커친(우익수)-케브라이언 헤이즈(3루수)-잭 스윈스키(좌익수)-최지만(1루수)-로돌포 카스트로(2루수)-오스틴 헤지스(포수)를 개막전 선발로 내보낼 것으로 예측했다.

선발투수로 미치 켈러가 나서 팀 뒷문은 데이비드 베드너가 잠글 것으로 봤다.

MLB닷컴은 "피츠버그는 재능 있는 젊은 선수와 저명한 베테랑들의 조합이 특징"이라면서 "(조화가) 모두 잘 된다면, 피츠버그는 여름이 끝날 때까지 명단에 젊은 선수를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츠버그 파이리츠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에서 신시내티 레즈와 경기로 시즌 레이스를 시작한다. /뉴시스

김하성

최지만

항저우AG 출전권 획득

임실군청 사격팀 이시윤, 국가대표로 선발
사격 국대 선발전서 여자부 공기권총 1위

임실군청 실업 사격팀 이시윤 선수가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전국 명사수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5일간) 인천광역시 옥련국제사격장에서 열린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사격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자부 공기권총 1위를 차지하며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획득했다.

이시윤은 여자부 10M 공기권총 1~4차 합산 2,315점을 사격하며 2,304점을 사격한 2위 김보미(IBK 기업은행)와 2020도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민정(KB 국민은행)을 누르고 당당히 1위로 선발됐다.

이로써 그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5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사격대회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임실군청 실업 사격팀 곽민수 감독은 "열심히 지도해서 꼭 아시안게임 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항상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임실군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시윤.
〈사진=임실군청 제공〉

심 민 군수는 "임실군 소속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에 선발돼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임실군 선수들이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

신규 스포츠대회 개최 위해 '맞손'

순창군, 대한여자소프트테니스연맹 등과 협약 체결

순창군이 대한소프트테니스와 신규 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27일 저녁 제44회 회장기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개막식과 함께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은 최영일 순창군수와 대한여자소프트테니스연맹 정인선 회장, 전북소프트테니스협회 박경만 회장 등 관계자 및 소프트테니스 선수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신규대회 개최를 위한 상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신규 유치한 대회는 '순창 오픈 종합 소프트테니스 대회'로 올해 9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전북소프트테니스협회의 제안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순창군과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와의 업무협약으로 대회 유치의 물꼬를 틔웠다.

'순창 오픈 종합 소프트테니스 대회'는 성인 중심의 대학팀과 실업팀 위주로 치러질 예정이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에서 신규 소프트테니스 대회 유치에 협조해주신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와 전북소프트테니스 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프트테니스의 세계화와 순창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새만금잼버리 성공 기원'

내달 30일 부안서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
하프 · 10km · 5km로 구성 1200여명 참여

부안군은 제8회 부안 새만금잼버리 성공기원 전국 마라톤 대회가 오는 4월 30일 개최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부안군이 주최하고 부안군육상연맹(회장 송방현)이 주관하며 전북도, 계화농협, 변산발전협의회, 부안경찰서가 후원한다.

대회는 전국 대회로 하프 · 10km · 5km로 1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총 상금 약 600만원과 하프 · 10km 참가자에겐 8kg 부안찹쌀 및 1만원 상당 부안사랑상품권이, 5km 참가자에겐 기념티가 증정될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에는 부안 내륙지역에서 들판을 달리는 코스였으나 이번에는 변산해수욕장을 출발해 부안댐, 새만금전시장을 지나 가력도까지 환상적인 변산반도 해안길을 질주하는 코스로 변경해 달림이들의 힐링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이번 대회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홍보를 병행해 다가오는 세계잼버리 성공개최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대회 개최지인 변산해수욕장에는 포토존, 암벽등반체험장, 사물놀이 행사, 스마일라인댄스공연, 갯벌 조개잡이, 변산반도 모래시장 조각공원 등 마라톤 달림이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즐길 수 있는 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

송방현 부안군육상연맹 회장은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족과 함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복한 마라톤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후원기관 · 단체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주민들의 참여 및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국소년체전 전북 태권도 대표 선발

대산초 강정화 · 임형관
전북대표 최종 선발전서
겨루기 +54kg · +58kg급
각각 1위 차지 우선 선발

대산초등학교 태권도부 강정화 · 임형관이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북 태권도 대표선수 최종선발전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해 전북 태권도 대표로 선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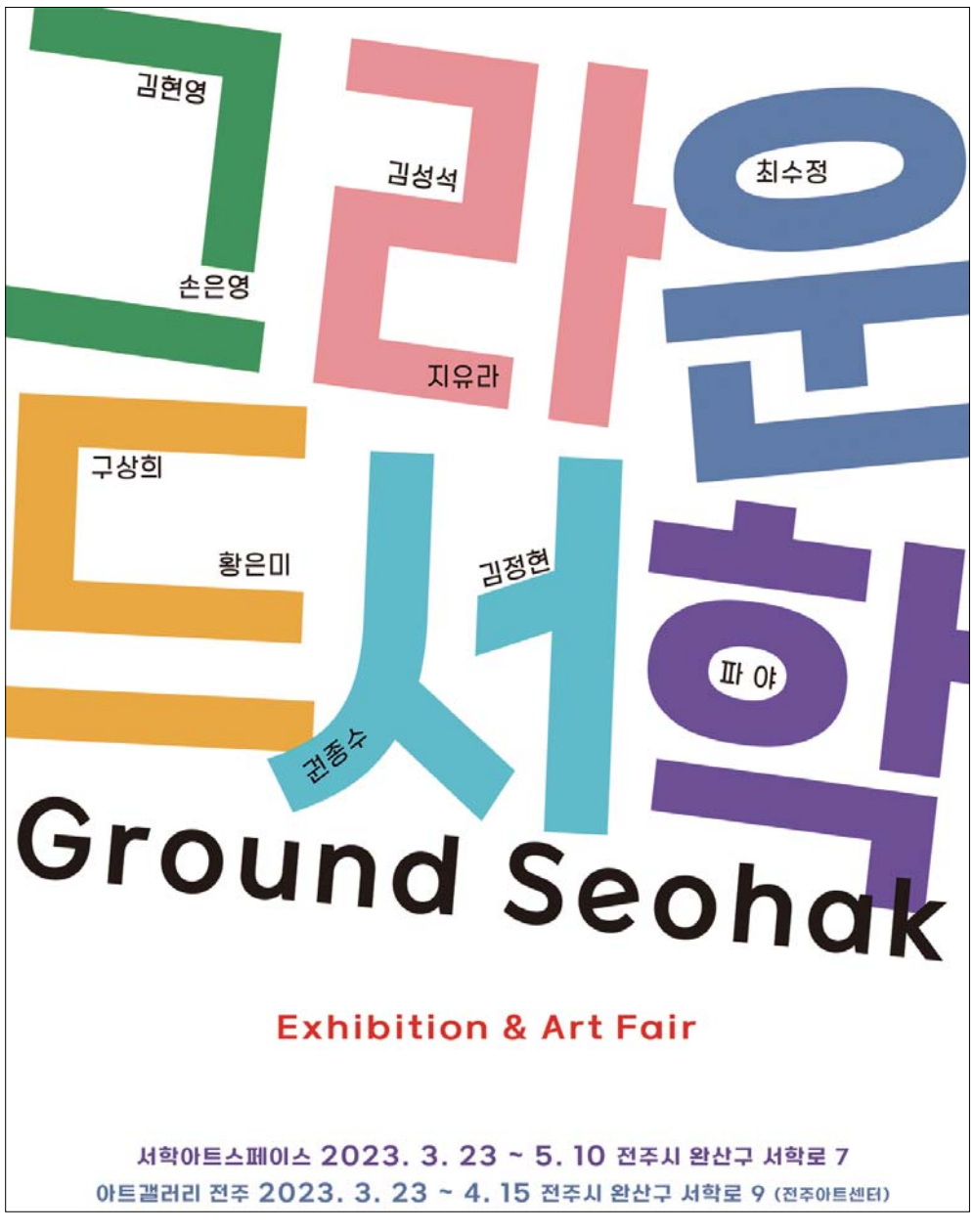
대산초등학교 태권도부 학생선수 2명이 전북태권도대표로 선발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25일 전주비전대학교 미래관에서 열린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북태권도대표선수 최종선발전 겨루기 +54kg급에 출전한 강정화 학생과 겨루기 +58kg급에 출전한 임형관 학생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먼저 강정화 학생은 이번 경기에 앞서 도대표 선발이 걸려있는 제34회 전라북도지사배 태권도대회와 제43회 전라북도교육감배 태권도대회에서 연속으로 +54kg급 1위를 차지하며 대표선수에 우선 선발됐다.

이어 임형관 학생은 교육감배 대회에 이어 이번 최종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해 도대표선수로 뽑혔다.

두 학생 모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취미로 태권도를 시작해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겨루기 수련으로 실력을 쌓아 태권도대회에 출전해 훌륭한 기량을 선보였다.

송미정 교장은 "앞으로 태권도 수련 중인 학생들이 더욱 더 기량을 쌓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학교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